

〈서평〉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An Introduction (Language in Society 3)

Muriel Saville-Troike

Oxford: Basil Blackwell, 1982, pp. xii + 290.

왕 한 석

여기서 소개하려고 하는 Saville-Troike의 책은 근래 출판되어 온 일련의 사회언어학 개론서들(Hudson 1980, Peñalosa 1981, Fasold 1984, Wardhaugh 1986 등)과는 달리, 의사소통의 민족지학(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으로 흔히 불리는, 언어와 사회구조와의 관계에 대한 민족지학적 접근에 초점을 맞춘 개론서이다.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이란 새로운 연구분야가 1962년 Hymes (1962)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후, 이 분야에서 발달된 주요 기술적 이론(descriptive theory) 그리고 우수한 연구결과들은 주로 단행본보다는 개별논문의 형식으로 발표되어 왔고, 따라서 이 연구분야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보다 평이한 서술양식으로 소개하는 입문서의 간행이 그 동안 널리 요청되어 왔다. Saville-Troike의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간행된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에 대한 최초의 개론서이다.

이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Introduction”은 연구의 범위와 초점, 역사적 배경 등을 간략히 서술한다. 제 2 장 “Basic Terms, Concepts, and Issues”는 의사소통의 유형과 기능, 언어공동체, 의사소통 능력, 분석의 단위 그리고 의사소통과 사회구조 등, 이 분야의 기본개념 및 질문들을 정리한다. 제 3 장 “Varieties of Language”는 diglossia와 bilingualism, code-switching과 style-shifting과 같은 말의 선택적 사용에 관한 일반적 소개 외에, 장소, 목적, 지역, 종족성(ethnicity), 사회계층, 지위와 역할, 성, 연령 등의 변수들과 관련되는 언어적 다양성을 많은 실제의 예와 함께 소개한다. 제 4 장 “The Analysis of Communicative Events”는 자료수집 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방법, 그리고 분석단위인 communicative events의 구성에 관한 자세한 논의로 이루어진다.

제 5 장 “Attitudes toward Communicative Performance”는 언어태도 연구의 방법, 다양한 언어태도의 내용, 그리고 언어태도와 언어사용의 다른 측면들과의 관련성을 기술한다. 제 6 장 “Acquisition of Communicative Competence”는 언어와 문화화(enculturation), 습득의 단계와 역할관계, 의사소통의 전략 및 비구어적 의사소통의 습득 등의 주제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 7 장 “Epilogue”는 이 분야의 현상과 일반적 문제점들을 간략히 기술한다.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이 책은 그 동안 이 분야에서 축적되어 온 연구결과들을 풍부한 실제의 예와 함께 종합적으로 정리, 소개하려는 개론서이다. 지금까지 이 분야를 소개해 온 주요서적들은 대부분 개별논문의 선집(Gumperz and Hymes 1972, Bauman and Sherzer 1974, Sanches and Blount 1975, Giglioli 1972 등)이거나 또는 이론적 논문들(Hymes 1974)이었다. 특히 이 분야의 이론적 발달에 중요한 공헌을 해 온 Hymes (1974)의 경우, 그는 말하기의 제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예들을 거의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독자들이 그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Saville-Troike의 이 책이 가지는 일차적 가치는,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에 관한 최초의 개론서로서, 이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결과들을 많은 사회에서의 구체적인 예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정리, 소개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이 분야의 최초의 개론서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연구범위의 협소한 선정이다.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의 연구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한 Gumperz와 Hymes (1972)의 시작에서 보면, 이 책은 무엇보다도 대화분석(conversational analysis) 그리고 구어예술(verbal arts)의 측면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제 4 장에서 말행위의 조직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지만(pp. 145-47), 대화분석의 연구결과는 전혀 소개되지 않는다. 또 제 6 장에서 말놀이(speech play)의 습득 측면을 잠시 소개하고(pp. 234-39), 제 3 장에서 민족지학(ethnopoetics) 연구의 일부분을 언급하고 있지만(p. 104), 말하기의 한 중요부분으로서의 구어예술의 측면은 전반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책의 구성상의 문제점으로 먼저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연구분야의 역사적 발달 및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의 결여일 것이다. 제 1 장에서 이 주제에 대한 부분적인 기술을 하고는 있지만, 가령 Jakobson의 공헌은 명기되지 않고 있으며, Gumperz의 상호작용 접근법(interactional approach)은 방법의 장에서(pp. 130-32) 간략히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또 의사소통의 민

죽지학과 사회언어학의 다른 접근법들(Fishman류의 언어사회학, Labov류의 사회언어학 등)간의 연구관심 및 연구방법 상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대한 일반적 소개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물론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온 주제는 아니지만, 개별 언어공동체 내에서 말의 체계가 다른 사회문화적 체계들에 관련, 통합되는 양식, 그리고 의사소통 행위의 비교문화적 일반화 등에 대해 거의 아무런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부분적인 기술상의 문제점도 또한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가령 communicative events의 구성에 관한 설명에서(pp. 137-48), 필자가 여기서 제시하는 모형이 Hymes의 잘 알려진 SPEAKING 모형과 어떻게 다른지(또는 그것을 어떻게 변형시킨 것인지)가 간략하게라도 언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같은 장에서(pp. 148-67), Ervin-Tripp에 의해 제안된 사회언어적 규칙(sociolinguistic rules)이 보다 자세히 소개될 수 있을 것이나, communicative events의 구성성분의 소개에서(p. 145) 그 일부분만이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데서 그치고 있다.

앞서 지적한대로, 이 책이 갖는 장점 한 가지는 여러 언어공동체에서 추출된 풍부한 사례의 소개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필자의 표현대로, 이 예들은 “부분적이고 일화적”(p. 250)인 것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점은 필자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연구보고의 부족에서 일차적으로 기인하였을 것이다. 책 전체를 통해 많은 일본어의 예가 곳곳에 소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주목을 끄나, 상대적으로 한국어의 예는 두 곳에서만(p. 45, pp. 236-37) 그것도 사소한 것들이 소개되어 있다. 심지어 복잡한 존대말의 체계를 논의할 때에도(p. 91), 한국어의 예는 생략된 채 자바어와 일본어의 예만 인용되고 있음을 본다.

이상에서 지적된 이 책이 보여주는 여러 문제점들은, 최초로 시도된 이 분야의 개론서에 대해 평자가 지나친 이상적 기대를 한 데서 연유하였을 지도 모른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평이하게 쓰여진 입문적 개론서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추천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책의 제 5장과 6장은, 지금까지 다른 책에서는 잘 소개되지 않았던, 언어태도와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에 관한 광범위한 범위의 연구성과들을 자세히 요약, 정리하고 있어, 이 방면의 초보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